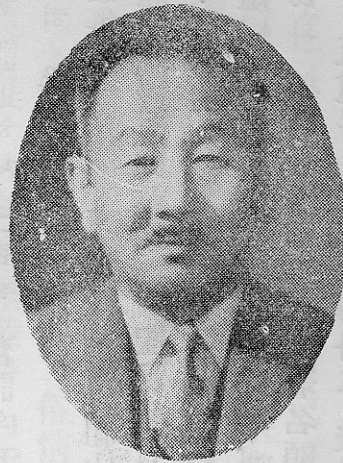


白氏大同譜 卷之一 附原編

白氏大同譜序

譜於字從言從普蓋言其普也則凡譜其族者曷不思普其合乎既合矣又不思世其修乎吾白氏譜始於 明陵丙辰累續修而曰甲子譜者最後焉今距三十六寒暑矣歲丙申冬京城花樹總會席圓咸曰譜可緩乎議更續修推余以總責余以非才淺識累辭不獲

謹承昔我先君甲譜之意遂以翌年夏飛通遠邇吳不響應越三年始克成編總十三册也告功頒行之際不漏弁卷記實之文故不顧僭踰而臆架一言且舊譜序跋連載緊言已盡將復用何語



可張皇鋪置乎嗚呼譜是一家之史※

嗇於後歟此正吾宗愷愷反躬痛省之日也嘗聞天道無親惟善是與凡我譜中人歸各尊閣時出奉玩惟先烈是慕惟母忝是思在家而為孝順在國而為忠憲則好還之天安知今不如古也耶願僉族氏毋謂我不躬言而忽之幸加之意而勉旃

己亥菊月重陽

中郎將公三十世孫 孝德殿叅奉 奎 鉉 照手謹書

序 (譯文)

族譜譜字는 말슴언 (言) 字邊에 너를보 (普) 字로 몸을 하였으니 그 뜻이 넓음 (普)을 말
 (言) 함이라 무릇 修譜하는 者가 어찌 그 合함이 廣範한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미 合하였으면
 代代로 修譜할것을 생각지 않으랴

우리 白氏譜는 肅宗丙辰年(距今二百八十四年)에 創刊하여 累代 繼述하였고 甲子 大同譜는 最
 終이니 三十六年前이라 丙申年 겨울에 서울 花樹會 總會에서 大同譜를 續修하기로 合議하고 나
 에게 總責을 委囑하거늘 내가 菲才淺識하므로 쟈 군이 辭讓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삼가
 前日에 尤考께서 甲子譜를 編輯하시든 뜻을 받드려 드디어 翌年 여름에 各地方에 發文하여 서
 로 響應하여 三年後 비로소 成篇하니 總十三冊이라 頒秩에 있어서 卷頭에 序文이 없지 못하여
 踰僭함을 도라보시 아니하고 一言을 記述하나 그러나 舊譜의 序文과 拔文에 緊한 말이 이미 다
 記錄되었거늘 다시 무슨 말을 張皇히 쓰리요

슬프다! 譜라는것은 一家의 史記라 그 根源을 溯及하여 祖上을 追慕하고 그 支流를 좇아서 宗

族을 敦睦하고 生歿 官閥 事蹟 行狀 婚娶 邱墓等을 記載하여 來歷의 興亡盛衰를 參考함이라

우리 祖上은 新羅 高麗로 부터 今일까지 高官大爵과 名卿碩儒가 代代로 끝치지 아니하여 사람

이 大族이라 稱하였으니 前世의 烜赫이 저렇듯 빛남은 무슨 까닭이며 遺澤이 이미 끈치여 先世

의 善行美德이 繼承치 못하고 人物과 學行이 低下하여 著名顯達이 적어짐은 어진 일이노 이는

後孫이 沈微하여지는 까닭이라 어찌 天道가 前에는 厚하고 後에는 薄하여 짐이리오 우리 宗族은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反省할 때가 왔노라 내가 일찌기 드르니 天道는 公正無私하여 오직 善

한者로 더부러 親하다 하니 우리 譜中의 宗族은 도라가 卓上에 높이 모시여 時時로 받드려 보

라 그의 先烈을 여기에서 思慕하게 되고 善行을 이어서 範받게 되어 私家에 있어서는 孝順을

至極히하고 國家에 나아가서는 忠義를 極盡히하면 遁環하는 天道가 어찌 前日과 같지 않으리오

願컨대 諸宗은 내가 몸으로 能히 行치 못하면서 口으로만 하는 말이라 하여 疎忽히 여기지

말고 아예 뜻을 두어 힘쓸지어다

叙懷

庚寅事變後 有志諸族이 大同團結하여 親睦을 圖謀하고자 花樹會를 創立하고 나에게 總務의 職을 委囑하거늘 마침 때에 느낀바 있어 靑雲의 뜻을 버린지 오랜지라 이에 宗事에 參與하여 各道郡別로 支部를 結成하고 一土兩斷과 同族相爭의 不測之變亂으로 或東或西에 散居漂寓하는 孤寂한 宗族을 網羅하여 서로 親善을 圖謀하고 이어 月刊會報를 發行하여 人間道義와 氏族精神의 大義를 鼓吹하고 啓蒙에 置重하였으나 財政難으로 不得已 休刊하였고 그 後에 京鄉諸族이 大同譜를 編纂하고자 하여 累次 나에게 問議한바 있었으나 恒常이르기를 「亂後에 民心이 아직 安堵되지 못하였으니 때를 기다려 圖謀하라」 하고 挽留하여 오더니 丙申冬에 花樹會 總會席上에서 論議가 再燃되어 諸宗이 나에게 一任하기로 可決하거늘 내가 굳이 辭讓하여 말하되 「아름답다 修譜하는 精神이여! 世降俗末하여 倫綱이 나날이 衰頹하고 風潮가 時時로 變遷하는 오늘에 修譜가 오히려 晚時之嘆이 없지 않으나 그러나 世事와 俗情이 어제와 같지 아니하여 비록 最大의 力量과 最善의 智能을 發揮할지라도 人和의 至難과 口舌의 弄絡으로 그의 結實을 憂慮하거든 況且이 社會에 無爲無能한 내가 더욱이 薄菲淺識으로 어찌 猥濫이 이렇듯 重大한 課業을 擔當한다 하리요 도리어 辱될가 하노니 달리 擇하여 門事를 맡히라」 하고 再三 固辭하였으나 應納지 아니하고 오히려 勸誘가 慇懃할세 다지 前日을 回想하니 白氏譜는 나의 先祖가 創刊하지고 累次 修譜하여 甲子年에 이르러 先考 總長公이 三十卷의 大同譜를 刊行하여 이로써 끝치였거늘 이제 다시 나로 하여금 續篇하여 先業을 繼述하게함은 偶然의 一致가 아니요 오로지 天賦之役이라 할지어늘 어찌 一時의 苦難을 괴롭다하여 圖避하기를 피하리요 마침내 거듭 辭讓치 못하고 드디어 人物을 內選하고 基金을 調成하여 翌年榴夏에 비로써 各道代表를 招請하여 淸말침으로 委員會를 編成하고 各派有司들로 하여금 單子를 收集하라 하였으나 한갓 焦點은 各派가 이미 派譜를 刊行한지 不過幾年이요 또 大譜와 派譜와의 性分을 理解하는 者 드물러 저 淸이 關心이 稀薄할것이며 따라서 時代의 古今이 判異하여 封建社會의 慣習으로 結附된 宿感도

없지 않았으려니 일로 말미암아惹起되는難疑와意思의蜂出로一時의曰是曰非는免하기어
 려우리라 그러나多幸히世傳文籍과歷代史記가儼然하니저로自重하여이文錄에서離脫되는
 言行은謹愼하여야 할지며非民主的인凡例와文字에對하여는眞實한愛族的인一念에서譜學
 의根本的 精神에立脚하여拔本塞源하고嫌疑를一掃하여過去の漏落者에게入譜의門戶를 넓
 히고抑鬱한者에게伸冤의 길을 닦아서저諸族의宿望에萬의一이라도報答하고斯界革新에
 一夫之役이 될가하노라

슬프다一族의大同譜를編修한다함은그氏族의 가장意義깊은盛事요莫重한巨役이라宜
 當小我를 버리고總力을集中하여統一된精神으로 밀고 나아가는 것이人間의本能이며따라
 서子孫된道理요父與祖의義務이어늘間或 이를誤認하여誹謗毀裂하고弄奸挾雜하는背倫
 者가 있음을 볼 때에 참으로 그의意圖가 어디에 있는지를理解하기에困難하며同族的 見地
 에서甚히遺憾된 일이라 아니할수 없도다

이로因하여人心이動搖하고人心이動搖하므로저流言蜚語가流布하여多年的積功도一
 朝에水泡로 도라가는例가 없지 않았다는 말을 내가 일찌기他門에서 드른바 있었으되 어찌
 吾門에서랴! 참으로哀惜함을禁치 못하겠노라

내가 이에先志를奉承하고衆望에酬應하여 처음으로붓대를 들었을 때에는이미 마음의覺
 悟는 간직하였고 또이社會에 있음직한一種의猜忌에서오는所行이라깊이責하고저 아니
 하나 다만이것이時日을遷延하는데한道具가 됨을 꺼리는바라이를물리침에는먼저人
 心을收拾하고實情을把握하여諸族으로더부러서로先後의打開策을講究하는아만갈지
 못하여冊床을건우고路程에올나坊坊曲曲 찾아드리各宗中을歷訪하여意見을相換하고胸襟
 을疎通하여다시神聖한精神으로眞實한役軍이 될것을強調하고巡廻한지어느듯半年이 기
 우리다시도라와各道委員을補強하고各派有司를激勵하여三有餘년에비로소竣功을뽐하고
 이에分秩함에즈음하여가마니걸어온자취를더듬어볼때에참으로慷慨無量한바있도다
 噫라! 長久한時日에數多한人力과累萬의財政을消耗하면서果然무엇을하였는가?

부고렵도다 처음 뜻하였든 바와의 어금이 크도다

첫째로 收單에 있어서 한 사람 일지라도 漏落을 防止하기 爲하여 負擔力이 없는 族人에게는 免除의 길을 열었고 系統을 알지 못하는 族人에게는 別錄을 制定하여 一時 머물러 때를 기다리도록 便宜를 圖謀하였으나 이제 統計面으로 보아 아직도 千으로 헤이게 됨은 實로 筆者의 不德의 所致가 아닌가 하나 그러나 이에 그 實情을 紹介하면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였다는 者도 있고 알고도 無關心한 者도 있었으며 또는 부질없는 妄想으로 納單日을 失期한 者도 있는가 하면 今日의 享樂에 陶醉하여 明日의 不運을 깨닫지 못하는 者도 없지 아니하며 同族으로서의 親切을 다하여 覺醒을 促求한바 있었으나 이를 反省함에 너무나 魯鈍한 感이 있었으며

둘째로 編纂에 있어서 大局의 으로 그 面貌를 刷新하여 內容을 充實히 하고 七段에 分하여 細書하고 洋裝으로 表飾하여 精密에 精密을 다 한다 하였으되 그의 結實에 對하여 編輯者로서 滿足을 느끼지 못하거든 아물며 有眼者의 보는바 이리요 白汗을 禁치 못하는 바이요 셋째로 印刷에 있어서 校正과 監印에 對하여 細心の 注意를 다 하였으나 또한 誤字落書가 없

지 아니함에 諸宗氏의 넓으신 諒解를 求하노라

이를 맺는 동안의 여러가지 苦難속에서 꾸준히 努力하여 주신 各道委員 및 各派有司에게 滿腔의 謝意를 表하는 同時에 이로써 宗事를 말치였다 마시고 더욱 花樹會의 育成을 爲하여 끊임없는 協助와 指導를 빌어 마지 않는 바이로라

願컨대 우리는 굳게 團結하여 서로 분들고 서로 이끌어 한 할아버니의 한 子孫으로서 한가지로 庇護하시는 한 그늘 밑에서 共存共榮하여 悠久한 歷史와 純美한 遺業을 길이길이 傳하여 하늘과 더불어 窮함이 없으라

白氏의 淵源

우리 白氏의 由來를 더듬어 보면 上古帝王 子孫圖에 黃帝 軒轅氏의 第十五代孫에 白乙丙이라는 後孫이 있어서 비로소 中華의 白姓이 되었다 傳하고 우리 始祖 松溪公이 中華人으로 新

羅로 건너왔으며 또香山(白樂天)文公年譜自序文에 記錄하기를 詩集五卷中에서 한卷은 新羅에 居住하는 族人이 갖어다가 新羅에 두었다 하였으니 新羅에 居住하는 族人이라 함은 當時의 松溪公을 指稱함이 아니였을까 하나 그러나 確乎한 文籍이 없고 昭然한 系統이 傳하여 오지 않았으니 攷證할 곳이 없음에 實로 遺憾이로다

東方(朝鮮)의 白姓은 家傳文集에 依하면 唐나라 德宗元年 新羅 宣德王元年 庚申(距今千二百四十年)에 松溪公이 唐나라로 부터 入國하자 唐皇帝가 累次 불으되 歸國하지 아니하고 이에 鷄林(現慶州)에 入住하여 新羅朝에 벼슬하므로 부터 우리 나라의 姓族이 되었다 傳하니라

貫鄉

吾宗의 貫鄉에 對하여 傳說이 區區하니 傳來文史에는 처음에는 開城府라 하다가 後에 水原이라 하였으나 그의 來歷을 밝히지 않았으니 考憑할 곳이 없고 後裔에 이르러 功勳으로 一土를 分封하면 그 地名으로 貫을 삼기도 하고 兵火로 避亂하여 故鄉의 地名으로 貫을 삼기도 하여 옛날 萬姓譜에는 貫鄉이 百八十四本이요 典故大方(書名)에는 十二貫鄉으로 分하였으나 丙寅年(檀紀四二五九年)에 甲子 大同譜를 畢役後 各派가 貫을 水原으로 單一化할것을 合意하여 只今은 大體로 一致되었으나 아직도 水原貫 以外的 貫鄉으로서는

藍浦(保寧驪齋公派) 大興(寧海淡庵公派) 淸道(淸道鰲山君派) 扶餘(梁山松潭公派) 林川(林原府院君派) 秦川 泰仁(平北) 등이 있되 對外的으로는 大體로 水原白氏라 稱하나니라

삼가 諸宗의 系牒을 綜合하여 보면 黃翼成公이 序한 一卷譜帖에 일으되 松溪公이 蘇州로 부터 東으로 건너 隋城(水原)에 居住하고 因하여 貫鄉으로 하다 하였으며 或은 中始祖 中郎將公(諱昌稷)의 曾孫 進士公(諱揮)이 高麗穆宗朝에 大司馬大將軍으로 水原君을 封하여 비로소 水原貫을 쓰게 되었다 하고 또는 中郎將公의 八世孫 政堂文學公(諱天藏)이 中國에서 金紫光祿大夫 吏部尙書로 高麗朝 忠宣王의 召還을 받아 歸國하여 水原伯을 封함에 이어 貫이 되었다 하니 果然 어스때의 水原貫이 分명한가를 譜學上으로나 史學上에 明確치 못하니 遺憾이로되 吾白은 松

溪公의 同一한 子孫이라는 것은 明確하니 그의 貫鄕도 또한 同一할것은 事實이라 後日 譜家は 이를 밝히기를 바라노라

水原府의沿革

水原府에 對한 地理 및 建置沿革을 들어 보면 東은 龍仁 西는 南陽 南은 平澤 北은 廣州로서 서울에서 相距가 三十五軒니 古朝鮮으로 後에 馬韓에 屬하고 또 高句麗에 屬하여 買忽郡이라 하더니 新羅景德王이 隋城(一云水城)이라 改稱하였고 高麗太祖가 南方을 征伐할 時에 그 邑의 百姓인 金七과 崔承珪等이 歸順하여 協助하였다 하여 그 功으로 저 水州라 陞格하였고 元宗十二年에 峯塗防의 守備兵 蒙古軍이 大部島에 侵入하여 居民을 掠奪함에 島民이 怨憤하여 蒙古軍을 殺戮하고 叛亂을 일으킬세 副使安說이 軍士를 引率하고 討伐하여 平定시키니 그 功으로 都護府로 陞次하여 當時의 邑號를 水原이라 改稱하더니 後에 또 水州牧使로 昇格하여 오다가 忠宣王二年에 諸牧使를 陶汰할 무렵에 다시 水原府가 되고 恭讓王이 郡으로 降等하였다가 다시 府라 하고 李朝에 와서 太宗朝에 都護府를 置하고 世宗朝에 隋城郡이라 하고 鎭營을 置하였으며 中宗朝에 다시 府라 하다가 縣이 되고 縣으로 다시 府가 되었고 正廟朝時에 官衙를 八達山下에 옮기고 廣州三邑을 編入하여 留守府가 되었으며 庚戌年以後 累次 市區計劃에 依하여 變更되여 오더니 今日에는 邑을 擴大하여 水原市라 稱하고 周圍의 面을 合하여 華城郡이라 稱하며 水原의 別號는 漢南 隋城 買忽 水州 水城 華城이라 稱하니라

水原府에는 吾白의 四族이 居住하였으니 自古로 居住하여 나려 오는 白氏와 內彌部曲(水原地方)의 白氏와 盆村鄉(水原地方)의 白氏와 또 他處에서 移來한 白氏라 하니 大概 政堂文學公 諱天藏이 비로소 開城府에 籍을 두었다가 水原으로 移居하여 水原伯을 封하였으니 移來의 白氏라 함은 그 白氏를 稱함이 아닌가 하였느니라

譜의 意義

春秋傳에 「召康公이 九族(直系尊卑屬各四代)을 一籍에 登載하므로 부터 始作되다」 하였으니

어는 譜의 體系를 말함이요 程張兩夫子의 宗法說에 「氏族의 譜가 있는지는 오래 되었으나 同宗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알지 못하면 어찌 祖先을 尊敬하고 氏族을 和睦하리오」 하였으니 이는 譜의 意義을 밝힘이라 이로써 足히 譜의 眞理를 알지라 故로 姓氏가 있으면 氏族이 있고 氏族이 있으면 譜牒이 있어서 千枝一根과 萬派同歸의 昭穆을 밝하여 敬祖之心을 昂揚하고 敦宗之義를 篤實히 하므로써 비록 根源이 遼遠하고 派別이 蕃衍하여 各處에 散在하고 貫籍이 不一할지라도 綜合된 大同譜가 있으면 同族相親하는 義理와 祖宗均視하는 體度가 自然 疎忽함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三十年을 一世로 하여 修譜하여 오니라

白氏譜의傳統

그러면 우리 白門의 族譜는 어느 때부터 있었는가?

永樂三年乙酉(距今五百五十五年)에 諱明玉이 創刊하고 그 序文을 大提學 黃喜氏가 叙述하였 다 함은 家傳文集에서 읽었으나 일찌기 傳하여 오지 못하였고(永樂譜라 稱함) 肅宗丙辰年(距今二百八十四年)에 別坐公(諱仁豪) 玄孫 兵使公 諱瑞翰이 처음으로 한卷을 刊行하였으며 英祖 己未年(距今二百二十一年)에 忠肅公(諱仁傑) 五世孫 同中樞公 諱時昉이 繼草하여 二卷을 印行하였으나 叅校公(諱思粹)의 內外孫錄에 不過하였으며 正祖丙申年(距今百八十四年)에 諱師浚 諱 師學兩氏가 大譜를 經營한지 四年에 如意치 못하여 마침내 六卷으로 終結하고 그의 凡例에 쓰기를 「累年 諸宗에게 周回하고 合譜하기를 再三 勸諭하였으나 應하지 아니 하였으니 後日 修譜 때에는 이러한 무리들은 絶對로 入譜를 許하지 말라」 하였으니 當時의 心境을 可히 알수있고 反面에 그 內容이 充實치 못함을 推想하겠으며 그後 純祖庚午年(距今百五十年)에 別坐公 九世孫 兵使公 諱泓鎮이 八卷을 出版하니 庚午譜라 稱하고 別坐公 十世孫 副總管公 諱能洙가 琪瑚公 諱斗鎮으로 더불어 憲宗丙午年(距今百二十四年)에 派譜를 起草하고 哲宗壬子年(距今百八年)에 大同譜를 開局하더니 翌年癸丑에 不幸히 別世함에 長胤 府使公 諱樂賢이 先志를 繼繩하여 丁巳年(距今百三年)에 畢役하여 總十九卷을 著述하니 이것이 吾白 有史以來로 처음 있는 大譜

로서 歷代修譜에 이를 模倣하였고 府使公의 季氏 左尹公 諱樂貞이 丙午年에 起草한 原稿를 庚午年에 이르러 私財로써 九卷을 刊行하니 이를 後庚午譜라 稱하고 戊戌年(檀紀四二二三年)에 水佈公 諱南奭이 直員公 諱樂永으로 더부러 繼述하고자 發文하였으나 不幸하 兩公이 다 別世함에 中斷되었고 甲子年(檀紀四二五七年)에 이르러 京鄉諸宗이 齋會를 열고 大同譜를 補修하기로 合議하여 大同宗約所를 創立하고 先考 總長公을 總裁로 推戴하여 二年後 丙寅年(檀紀四二五九年)에 三十卷을 發刊하니 이를 甲子大同譜(一云丙寅大譜)라 稱하고 이로써 끝치었느니라

派譜와 間張

間張이라 함은 한사람의名單한 派만을 印刷하여 本人에게만 挿入하여 주는것

千枝萬葉을 一根에 聚合함을 大同譜라 稱하고 一派를 單位로 子孫錄을 連載하여 이르되 派譜라 하나니 그 規模가 비록 적으나 精密詳細하여 派內의 實情과 動態를 把握함에 큰 도움이 되고 慶吊相門에 相扶助하여 家庭的 雰圍氣를 呼吸할수 있는 좋은 寶帖이러니 近者에 沒知覺者들이 派譜를 口實로 山間僻村에 散居하여 祖元을 알지 못하는 純眞한 族人을 欺瞞하여 마음대로 各派에 連系하고 間張으로 業을 삼아 派系의 亂雜은 勿論이러니와 後日에는 또한 一種의 文籍化하여 敵反荷杖格으로 도르려 本宗을 凌視하고 派內에 紛糾를 招來하여 서로 보기를 仇讎와 같치하면 敦睦을 目的으로 하는 族譜가 없느니만 같지 못하리니 어찌 한張의 間張인들 업수이여길가보나

崇祖敦宗은 口號로 糊口之策의 道具로 쓰려는 者여! 反省하라 先世에 罪人이요 後孫에 積惡이니라

文獻과 山圖

보라! 卷頭의 燦爛한 史蹟과 峻巖한 山勢를.....!

孝悌忠烈과 善行美蹟은 先祖 德業의 志操요 鳳嶺鷲峰과 靑龍白虎는 子孫繁榮의 兆朕이로다

우리는 先祖의 志行을 받드려 繼繼繩繩하여 名聲을 千秋에 傳하고 이 社會에 바람이 있는 그
릇이 되라 近世에 道義觀念과 博愛精神이 날로 微弱함을 볼때에 어찌 來日를 근심치 않으리오
모름직이 이에 힘쓰고 이에서 求하라

子孫으로서 報本하는 道는 世世로 先墓를 勤實히 守護하는 것보다 더 큰일이 없나니 子孫이
各地에 散居하여 비록 慕先하는 마음은 있으나 相距가 超遠하고 또는 貧寒하여 精誠을 다하지
못하고 一生에 한번도 省墓를 못하는 例가 없지 아니하니 어찌 遺恨이 없으리오 이에 諸先의 山
圖를 蒐集하여 비록 省楸는 못할 지언정 이를 펴서 보면 一目이 瞭然하여 墓庭에 서서 있는 것
같고 先祖의 體魄이 계신 곳을 알어서 永久히 失傳함이 없기를 바라는 바로라

現世의 儒學이 衰退一路에 있어 漢字制限 漢學廢止等說이 擡頭하는 오늘에 原文만으로는
能히 耽讀하여 解得하기 困難할가 하여 猥濫히 短文에도 不顧하고 譯解하여 概意를 畧記하노니
이로써 讀者에게 多少의 도움이 된다면 多幸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오는 날의 修譜

祖國統一을 기다려 받드시 修譜하리라

바라는 바는 封建的 思想을 버리고 民主主義 理念下에 오로지 修譜하는 根本的 精神에 立脚하
여 거로 恭敬하고 서로 謙遜하여 未審한 文字는 文籍과 大譜에 依憑하여 系統的 亂雜과 秩序
의 混沌으로 上祖에 辱됨이 없도록 힘쓰라 未久不遠하여 우리 나라에도 女子로써 後繼를 論議할
時期가 반도지 없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오늘날의 修譜에 있어서 더욱이 上系의 昭穆과 兄弟의
次序를 날날하 밝히어 後日 修譜하는 者로 하여금 系列을 分明히 하고 漏落者로 하여금 失宗
함이 없도록 힘을 다하였노라

在北諸族에 一言

青天에霹靂이로다 國土의 兩斷이여!

우리가 大同譜를 編輯함에 있어서 宜當統一를 기다려 諸族으로 더부러 한가지로 一葉에 收錄하는 것이 氏族의 道義요 情誼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로되 國勢에 비추어 統一은 渺然하고 修譜의 時期는 왔노라

들으라 過去의 大同譜가 이미 三十六星霜이요 不測의 慘酷한 兵火로 男負女戴하여 東西流離로 漂浪의 客이 된지도 十年이라 不歸客은 誰何며 生還者는 誰也오 傳來文集과 家藏書籍은 兵火에 灰燼되고 東方禮義와 倫理紀綱은 風潮에 掃蕩하여 昭穆은 且置하고 三親九族인들 어이 알리! 이에 可호하느니라 悲憤한 心懷를 움켜 쥐고 먼저 南韓의 諸族을 收錄하노니 허물치 말라 빨리 도라오소 부을 들고 기다리노라

編輯者 謹識



惟我白氏系出松溪羅麗以來暨于李朝族繁派分其麗不億不千也道學之高明簪纓之顯達世所共知不必枚舉贅論而實爲我東清族也明矣噫人生厥初一身分爲三親三親至於九族漸至於途人視之則豈不慨然乎哉祖先之繼承子孫之派分詳知然後慕先之誠睦族之誼自在其中矣故先世修譜繼續由來而近世建國之草創兵禍之餘毒已過修譜之期派族錯雜相互漠然恒爲憾歎不已越在丁酉奎鉉甫與宗中諸賢累次會合決議修譜而請予視事素以愚劣豈敢以擔當謹助吾宗美舉相悅之忱役已告功莫重大譜革新完成則眞是奎鉉甫及諸賢精熟傾注之誠所致也以此印行家藏則非但辨昭穆明行列而亦爲繼志述事也豈不美哉將使後生油然而孝慈之心追慕祖先敦睦宗族應有觀感而興起哉

屠維大淵獻之小春 大韓民國陸軍少將 洪錫謹書

오직 우리 白氏는 松溪公으로 부터 始作하여 新羅 高麗以來 李朝에 이르기 까지 宗族이 繁衍하고 派가 分
 離되어 그 數가 累萬이라 道學이 崇高하고 官爵이 顯達하여 世上에서 다 알고 있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
 리 東方의 淸族이라는 것은 分明하도록 슬프다 사람이 本是는 一身이로되 分하여 三親이 되고 三親이 分하
 여 九族이 되어 漸漸 外人禍하게 되면 어찌 慨然치 않으리요 祖先의 繼承과 子孫의 派分을 자세히 알은然
 後에 先祖를 追慕하는 誠意와 宗族을 敦睦하는 義理가 自然 여기에 있는 故로 先世에서 族譜를 編修하여온
 것이라 近代에 이르러 建國之初요 兵禍之亂으로 因하여 別씨 修譜할 時期가 늦어서 派別이 錯雜하므로 서로
 漠然하여 恒常 感嘆함을 禁치 못하더니 丙申年에 奎鉉氏가 宗中諸賢으로 더불어 累次 會合하여 修譜하기로 決
 議하고 나에게 視務를 請하나 本의 愚劣하므로써 어찌 敢히 擔當하리요 삼가 吾宗의 舊은 일을 行하는 그
 誠意에 協助하여 이에 竣功을 告하고 莫重한 大譜가 革新完成하였으니 이는 奎鉉氏와 諸賢의 精熟을 傾注
 한 誠心에서 나온바라 이를 家藏하여 다만 昭穆을 分別하고 行列를 밝힐뿐 아니라 또한 先志를 繼承하고
 事蹟을 著述함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요 將次 後代으로 하여금 祖先을 追慕하고 宗族을 敦睦하는 다음이
 油然而 이터날 지어다

惟吾白氏之修譜其來久矣自其分派派各有譜則已累而大同則丁巳甲子譜也然松溪公以下子姓遍滿八域
 議不歸一不無有漏之嘆乃者洪錫奎鉉兩宗氏慨然有憾于茲勅議發通而奎鉉氏觸風冒雪于京于鄉收合名
 單闕三簡星霜而克成此巨事雖有各道諸任員之旋力非奎鉉氏之苦心盡力安能如是乎偉歟盛哉夫譜一門
 之大頭腦而派譜亦易有漏則大同實至重而尤難者也此譜亦有所或漏然比於昔日之大同則今實千載一時
 之大同耳噫譜非大同則一邦之內難知某祖之裔居於何處亦不知某處之宗爲某祖之后而近者猶疎疎者猶
 遠何以明派系敦九族乎有漏則不能無慨歎者然也兩宗氏見得明而秉得確修正於天地翻覆義理敦喪之中
 不佞自有所感於心故乃贊其成而書此數語

靜慎齋公二十三世孫 南善 謹書

우리 白氏의 修譜한지가 이미 오랜지라 自然이 派가 나누어 派에는 累次 修譜하였으나 大同譜는 丁巳甲子
 譜뿐이라 松溪公以下 子孫이 八道에 散在하고 議論이 歸一치 못하여 漏譜之嘆이 있더니 洪錫 奎鉉兩氏가 慨

然히 이에 느끼여 創意하여 通文을 發하고 奎鉉氏가 風雪을 무릅쓰고 於京於郷에 名單을 收合하여 三年有餘
 에 이 巨役을 畢하였으니 비록 各道任員의 旋力이 있었다 할지라도 奎鉉氏의 苦心盡力이 아니면 어찌 이루
 였으리요 偉大하고 壯하도다 大概 譜는 一門의 頭腦로서 派譜에도 또한 漏落되기 쉽거든 大同譜는 至重하고
 또 至難한지라 이에 또한 遺漏됨이 없지 않을것이나 前日에 比하면 이제 實로 千載一遇의 처음되는大
 同譜라 할지로다 噫라 大同譜가 아니면 一邦內에 어느 祖上의 後裔가 어디 사는것을 알며 또 某處의 宗族
 이 어느 祖上의 后를 알수 있으리요 近親이 오히려 疎遠하여 지고 疎遠한 族人이 더욱 멀어지면 어찌 派
 系를 밝히고 九族을 敦睦하라 漏落된 族人은 慨嘆치 않을수 없으리라 兩宗氏는 公平正重하고 確固不動하여 天
 地가 翻覆하고 義理가 끊어지는 마당에 있어서의 修正에도 조금도 窳拙함이 없음을 보고 스스로 마음의 느
 낌바 있어 그를 讚揚하여 이에 두어 마디를 쓰노라

原編

一世 中始祖昌稷

謹按諸宗系牒字和叔新羅景明王朝官中郎將 贈侍中上將軍墓醴泉失傳一云諡英禮享玉山祠配 尙和公主朴氏景明王昇英女无育 鎮川林氏父三重 大匡一興君曦一云前配龔氏大將軍直妹无育 謹按林氏譜大將軍興化府院君曦女書公姓諱註曰林川人字和叔郎將 贈侍中爲白氏鼻祖

二世 子吉

謹按諸宗系牒字太初新羅敬順王朝蔭補校尉高麗太祖朝官征南將軍廣許侍郎歷事肅宗定宗 郎忠州劉氏父太師內史令兢達

三世 子思柔

高麗光宗癸酉王融取進士公登壯元及第成宗辛卯以翰林學士入宋謝賜經及御製前後再知貢舉見麗史 謹按諸宗系牒自宋還拜諫議大夫後貶永州神史後宥還而贈諱文正一云號退隱公有詩云安得伊呂才如逢堯舜世文舉道行卓冠一世儀禮制節莫不中正名振天下 配 朗州崔氏父太師內史令敏休公知夢

四世 子揮

成均進士 謹按諸宗系牒字慶院號浦洲諡清獻公年十六登國子進士壯元官內奉監高麗穆宗朝大司馬大將軍封水原君文宗朝爲平章事公文學高行大鳴於世聞于中國 配 開城王氏高麗太祖從弟威靜公式廉女生一男 金氏禮賓卿廉女

五世 子簡美

大將軍 謹按諸宗系牒字慎甫號月谷高麗成宗朝登第官至光祿大夫判兵部事監修國史兼大將軍輔國事歷事六朝乞骸歸寧海田中文宗屢徵不起壽九十七訃聞王撤朝市三日減膳親奠香遣禮官致祭公爲人正大諱厚以禮自守有學業善屬文國家詞命皆出其手論貞愍墓寧海府西節頭山東麓楸子洞甲坐衆知政事朴寅寫撰神道碑銘政堂文學朴袖書今失傳 配 李氏父左輔闕揚无育 三韓國大夫人光山余氏公平章事文貞公策 己未譜云李相國集右左右衛大將軍監門衛大將軍朝散大夫神衛衛大將軍者又有朝散大夫禮部侍郎者侍郎今之參

六世 子裕臣

子裕臣

子良臣

子武臣

子可臣

子景臣

三 四 六 六 六